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가정간호가 초산모의 양육능력에 미치는 효과*

장 순 복** · 송 주 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갓 태어난 신생아는 인생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 의존적이고 결정적인 시기에 있으며 어머니의 돌보는 양식과 질에 따라 평생의 건강상태가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신생아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서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생아 관리에 있어서 산모가 이루어내야 할 산육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지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어머니 능력을 획득하여 신생아를 적절히 돌봄으로서 신생아가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적절한 돌봄을 위해서는 아기의 욕구에 민감하고도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통적으로 제공된 신생아 가정간호인 제대관리, 목욕, 수유 등의 신체적 간호이상의 신생아 특성을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근래로 오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양육적 지지자들의 상실, 병원 분만후 모아분리로 인한 모아관계 개시의 어려움, 조기퇴원 경향에 따른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기회의 감소 및 신생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산모들이 아기를 낳아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로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는 하더라도 막상 어머니가 된 후 실제적인 신생아 돌봄에 많은 어려움과 당혹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김혜원, 황문숙, 홍경자, 1998; 신혜숙, 이경희, 1998). 이러한 어려움이 중재되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는 어머니로서 아기를 돌보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모아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리게 됨과 동시에 모아애착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영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신정, 1990; 문영임, 1998; 하영수, 정금희, Cooper, 1998).

대상을 돌본다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산모가 돌보는 대상자인 신생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생아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신생아를 적절히 돌보려면 신생아가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신생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로는 수유, 배설, 수면 관련 욕구가 있으며, 신생아는 이러한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의사표현 형태로서 다양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Signaling Behavior)를 보이게 된다(김태임, 1997; 임혜경, 1997). 만약 이러한 행위의 의미를 산모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지

* 학술진흥재단의 1997-001-F00296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성간호학전공, 가정간호연구소 연구원임

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신생아는 울음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즉, 울음은 신생아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생아의 수유, 배설, 수면-각성 등의 욕구를 울음으로서 표현할 때에 어머니가 신생아의 요구를 분별할 수 있다면 신생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반응능력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러한 신생아의 요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기양육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신혜숙 등, 1998).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신생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면 인지된 사실에 대한 반응이 유형화되어 점차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산모의 양육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가정간호에서는 신체적인 돌봄을 넘어서서 신생아를 돌보는 산모의 양육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는 비디오 상영 등의 시청각 매체를 이용할 때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 실제로 신생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어머니의 신생아의 신체적 돌보기나 양육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의 효과를 산모가 느끼는 자신감이나 만족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였고(곽연희, 이미라, 1996; 이자형, 1998; 정계하, 1993),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와 관련된 양육능력이 객관적으로 관찰되어 설명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생아 가정간호 상황에서 신체간호와 신생아 특성 관련 교육이 산모의 양육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생아가 울 때 초산모가 반응하는 정도를 직접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설문지를 통해 신생아에 대한 지식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의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초산모군은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가정간호를 제공받지 않은 초산모군보다 신생아가 울 때의 반응정도가 높은가?

둘째,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초산모군은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지 않은 초산모군보다 신생아 능력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가?

2. 용어 정의

1)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가정간호

가정간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신생아와 산모에게 제공된 간호행위로서, 본 연구에서는 수유, 목욕, 제대관리 등을 위한 30분간의 직접간호와, 신생아의 오감특성, 수면-각성특성, 수유특성, 배변특성, 사회성 특성이 예시된 비디오(19분짜리) 상영과 상담을 통합한 60분간의 간호를 말한다.

2) 양육능력

양육 능력은 출산을 통해 어머니가 된 사람에게 기대되는 일련의 인지적 행위적 능력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으로는 4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신생아의 특성에 대한 지식정도를 측정한 결과 산출된 0-42점 범위의 점수와, 행위적 측면으로는 신생아가 울 때에 엄마가 쳐다보기, 안아주기, 말걸기, 만지기, 가까이 가기, 표정짓기로 반응할 때의 적극성 정도를 Attachment Indicators During Stress (AIDS, Massie-Campbell, 1977)로 측정한 결과 산출된 6-30 점 범위의 점수를 말한다.

3) 신생아 능력

신생아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특성, 수면-각성특성, 수유특성, 배변특성, 사회성 특성 등을 행위로서 표현할 수 있는 신생아의 능력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42개 문항으로 표현되는 행위적 특성이 포괄된 내용을 말한다.

3. 연구가설

첫째,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초산모군은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지 않은 초산모군보다 신생아가 울 때의 반응정도가 높을 것이다.

둘째,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초산모군은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지 않은 초산모군보다 신생아 능력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초산모의 양육능력

양육능력이란 출산을 통해 어머니가 된 사람에게 기대되는 일련의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아관계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정의적 속성 및 일련의 돌봄행동과 관련되며, 여기에는 양육행위와 관련된 두가지 개념인 "Mothering"과 "Motherliness"가 포함된다(Bobak, Jensen & Zalan, 1989). 출산 후 산모가 어머니로서 기대되는 양육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영아돌보기 활동(mothering)과 어머니다운 감정(motherliness)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만약 영아돌보기 활동(mothering)을 숙달된 방식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머니 자신에게는 어머니로서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어머니다운 감정(motherliness)에 실패감을 줌으로서 양육 역할을 수행할 때 자신감을 저하시키고(이은숙, 1988), 부정적인 모성정체감 형성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신생아에게는 모애착의 결핍이라는 위기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김혜원 외, 1998). 즉, 산모가 어머니로서 안정된 정서를 획득하고 두려움없이 안정된 양육행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생아의 실제적 돌보기 활동 능력이 기본이 되는데, 이러한 신생아 돌보기 활동은 신생아가 욕구가 있을 경우에 표현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신생아의 신호, 즉 행위적 특성을 어머니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한 후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정서적 요소인 애착적 행위로서 나타난다(권미경, 1998). 그런 측면에서 아기의 중요한 의사소통수단인 행위적 특성으로서의 울음의 의미와 이 때의 돌봄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어머니가 되는 초산모들은 나름대로 어머니가 될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일단 어머니가 되고 나면 대부분 처음에 신생아를 안는 것조차 무섭고, 신생아가 왜 우는지 알지 못하며, 울 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몰라 당황하게 되므로 신생아 돌보기에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하영수 등, 1990; 박영숙, 1991; Mercer, 1986). 이러한 경향은 현대로 오면서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영아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인적자원과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심해지고 있으며(이혜경, 1992), 신생아에 대한 지식과 양육에 대한 경험 모두가 부족한 초산모의 경우 양육과 관련된 부담감과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영아의 울음이나 보채는 것 등과 같은 영아의 다루기 힘든 행동과 적절한 돌봄양식에 대한 지식부족은 어머니 양육능력 획득과정에서 산모에게 커다란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으며 어머니 역할 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

중재가 필요함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설명되었다(신혜숙 등, 1998; 이경혜, 1982; 이자형, 1998; 장순복, 1999).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면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곽연희 등, 1996; 구현영, 문영임, 1998; 서영미, 1998; 이자형, 1998; 정계하, 1993), 나아가 긍정적인 모성정체성을 획득하는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로부터 신생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돌보기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신생아에게 있어 울음의 의미는 보통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수유의 욕구, 배설의 욕구, 수면의 욕구와 관련되므로(Barnard, 1985), 이러한 욕구와 관련된 돌보기 활동과 신생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위한 행위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모두 부족한 초산모의 교육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헌고찰을 통한 어머니 양육능력을 요약해보면 어머니의 신생아 양육능력의 기본은 신생아의 의사소통 수단인 울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기의 욕구에 즉각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며, 신생아가 울 때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양육의 중요요소이므로, 신생아 욕구 표현의 주요방식인 울 때의 어머니의 반응정도를 통해서 초산모의 양육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생아 가정간호

전통적으로 신생아 가정간호는 산모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조산사에 의한 출산이후 추후관리나 보건소의 방문간호형태로 제공되었다. 이 경우의 가정간호는 대체로 신생아의 계대관리, 아기목욕, 수유 등의 물리적, 신체적 돌보기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시범위주의 교육이 추가되어왔다(전은미, 1993).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결과가 내재화되어 행동으로 표현되려면 매개요인이 되는 신생아를 돌보는 행위의 주체자인 산모의 민감성이 중요시된다. 민감성이 높아지려면 산모가 아기의 욕구에 대해 얼마나 마주하고, 접근하여 정서적, 행위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생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의 반응능력은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데서 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 태어난 신생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적 능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유, 배설, 수면과 관련하여 자신의 욕구를 행위로서 표현할 줄 알며, 엄마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자형, 1997; Brazelton, 1961).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러한 신생아의 능력과 행위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생아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신생아는 울음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김태임, 1997; 최연순 등, 1999; Brazelton, 1962). 만약 산모가 신생아의 울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신생아를 돌보는 데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감소되고 자신감이 증진되며, 나아가 모아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산모들이 신생아 돌봄 활동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에 대해 조사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생아 성격, 신생아 행위의 의미 파악, 아기울음의 의미 파악, 아기상태 파악, 아기 달래기, 배변양상, 수면양상, 안전관리, 응급처치, 목욕시키기, 모유수유하기, 배꼽관리, 예방접종 등에 대해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경혜, 1982; 이자형, 1998; 장순복, 1999).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울음의 의미, 아기상태 파악하기, 신생아 행위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여러 신생아 돌보기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산모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실제로 산모들이 어렵게 여겨서 교육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으며, 산모 뿐 아니라 산모를 곁에서 돕는 산후조력자들이 보다 신생아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기본으로서 신생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다(장순복, 1999).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신생아 관련 가정간호 교육이 언어적 설명과 유인물 이상의 방법으로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자료인 비디오를 통해 제공된다면 산모교육의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본다. 이는 인간의 학습효과는 시각적 매체를 통한 교육경험이 곧장 모방학습으로 반영되어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eder, Martin, Koniak-Griffin, 1997; Knowles, 1980). 또한 교육의 시점을 신생아에 대한 양육의 책임감을 느끼고, 일차적인 산모자신의 간호요구로부터 신생아로 관심이 전환되는 시기인 퇴원후 적극기로 할 때 교육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산모의 신생아 양육능력 정도를 설명하는 신생아 가정간

호의 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고찰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 연구는 신생아 비디오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고, 2단계 연구는 가정간호 대상자인 초산모에게 개발된 신생아 비디오의 상영을 포함하는 가정간호를 직접 적용하여 신생아 양육능력의 변화를 봄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시차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1) 1단계 연구(신생아 비디오 개발단계)

신생아 오감능력과 수면단계, 수유 및 배변 욕구에 따른 행위적 특성과 그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방법에 관한 신생아 비디오 개발을 위한 연구설계는 방법론적 연구로서, 구체적인 비디오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 문헌고찰을 통해 신생아의 오감능력, 수면단계, 수유 및 배변 욕구시의 행위적 특성과 그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방법이 설명된 대본을 작성하였다.
- 나. 비디오 촬영을 위하여 3가족의 부모와 면담한 결과, 촬영에 동의한 한 가족의 부모와 아기를 선정하여 한달간 24시간씩 매일 아버지 자신이 촬영하도록 하였다.
- 다. 연구자와 연구조원이 3회의 과정을 거쳐 편집하였다.
- 라. 산부인과 영역 간호사 10명, 모성간호전공 간호학석·박사 과정생 4명, 임산부 3명, 연구자 및 연구조원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명료성, 전달성, 시제성 및 적절성을 90분간 토의하였다.
- 마. 토의결과에 따라 비디오 전문가와 공동으로 논의를 한 후 2회에 걸쳐 편집, 수정하였다.
- 바. 편집된 비디오를 산모 5명에게 보여주고 지적사항을 수정하였다.
- 사. 편집, 수정된 비디오를 연구자, 연구조원, 비디오 촬영자가 시사회를 갖고 명료성, 전달성, 시제성과 적절성을 재토의 수정하였다.
- 아. 신생아 오감능력과 수면단계, 수유 및 배변 욕구에 따른 행위적 특성과 그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19분짜리 비디오가 제작되었다.

2) 2단계 연구(신생아 가정간호의 효과검증 단계)

본 연구자가 제공한 신생아 가정간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시차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를 위하여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초산모군인 실험군과 제공받지 못한 초산모군인 대조군간의 신생아 양육능력의 차이를 각각 산후 한달에 관찰, 비교하여 신생아 가정간호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98년 10월 8일부터 1999년 6월 28일까지 9개월간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Y의료원에 입원하여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시차를 두고 임의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선정 기준에 합당한 초산모 2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 2) 임신과 분만과정에 합병증이 없는 자,
- 3) 재태기간 36주 이후에 출산한 자,
- 4) 2.5kg이상의 건강한 신생아를 분만한 후 함께 퇴원한 자,
- 5) 초산모인 자.

3. 연구도구

1) AIDS(Attachment Indicators During Stress)

에 의한 스트레스하에서의 모아애착 지침 도구

양육능력 측정을 위하여 Attachment Indicators During Stress(AIDS, Massie-Campbell, 1977)에 의한 스트레스하에서의 모아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지침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생아가 배고프거나 배설한 경우와 같은 스트레스시 우는 반응을 보일때 엄마가 반응하는 정도를 쳐다보기, 이야기하기, 만지기, 감정표현하기, 가까이 가기, 안기 등의 6개 항목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1점, 해당 행동을 미미하게 보이면 2점, 가끔 보이면 3점, 자주 보이면, 4점, 지속적으로 하면 5점으로 표기하도록 고안된 도구로서 각 항목별로 1-5점으로 구성되어 총 6점에서 30점 범위의 점수로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능력이 높은 것으로 본다.

2) 신생아 능력에 대한 지식측정 도구

이는 신생아의 능력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헌을 기초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서, 오감(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특성(12문항), 수유를 원할때의 특성(4문항), 배변을 원할 때의 특성(3문항), 수면-각성 주기특성(19문항), 사회성 특성(4문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총 42개 문항에 대해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아니다'로 표기하게 한 후 '확실히 그렇다'는 정확히 아는 경우로 1점을, '그럴 것 같다'와 '아니다'의 경우는 모르는 경우와 오답으로 0점을 주도록 구성되어 총 0점에서 42점까지의 점수로 산출되며 점수가 많을수록 신생아의 능력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이다.

4.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연구대상기관에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얻은 후 진행되었다.

대조군은 중재효과의 확산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 10월 8일에서 1998년 12월 2일 사이에 분만을 하고 건강한 신생아와 함께 퇴원한 초산모 중에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초산모 15명이었다. 분만 후 한달이 되는 시점에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여 신생아가 울 때 초산모의 반응능력정도과 신생아의 지식정도를 확인하고, 자료수집을 한 후 즉시 전화상담서비스를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산후 한달에 측정하므로 실험군에 제공한 가정간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실험군은 1999년 4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분만을 한 초산모중에서 건강한 신생아와 함께 퇴원할 산모들에게 산부인과 병동과 신생아실에서 홍보하여 자의에 의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초산모 13명이었다. 출산 후 5-6째에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여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출산 후 한달에 재방문하여, 신생아가 울 때의 산모의 반응능력정도는 직접관찰법으로, 신생아에 대한 지식정도는 설문지를 통해 산모로부터 직접 자료수집하였다.

실험군은 16명이 신생아 가정간호를 받았으나, 사후 가정간호사가 재방문하여 관찰측정하는 시기에 3명이 연구참여를 거절하여 총 13명만이 참여하였고, 대조군은 15명이 참여하여, 총 28명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10월 8일부터 1999년 7월 7일까지 였다.

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를, 산모의 반응능력 정도와 지식 정도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총 점수에 대해 Mann-Whitney test를 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 진행상 처치시기와 사후 측정기간이 한달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가정방문으로 관찰당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실험군, 대조군 참여자 수로부터 나온 결과라는 점과 Matched Sampling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고 있다.

IV. 연구결과

1. 대조군과 실험군의 일반적 특성

1) 산모의 특성 비교

대조군의 초산모는 15명으로, 평균 연령은 28세이었고, 교육정도는 고졸이 4(36.7%)명, 대졸이상인 11(73.3%)명이었다. 초산모 중 9(60.0%)명이 직업이 있었고, 10(66.7%)명이 핵가족 형태였다. 임신횟수는 평균 1.1회이었다. 산전, 산후교육은 2(13.3%)명만이 받았고, 12(80.0%)명이 원하는 임신을 하였으며, 8(53.3%)명이 계획된 임신이라고 하였다. 8(53.3%)명이 태교를 하였고, 5(33.3%)명이 양육의 관찰경험이 있었으며, 14(93.3%)명이 산후 한달동안 산후조력자가 있었다.

실험군의 초산모는 13명으로, 평균 연령은 30.2세이었고, 교육정도는 고졸 1(7.7%)명과, 대졸이상 12(92.3%)명이었고, 직업은 9(69.2%)명이 있었으며, 10(76.9%)명이 핵가족 형태이었다. 임신횟수는 평균 1.9회로 대조군의 임신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U=53.0, p=.01$)가 있었다. 산전교육은 4(30.8%)명이, 산후교육은 6(46.2%)명이 받았으며 12(92.3%)명이 원하는 임신이었고, 10(76.9%)명이 계획된 임신이었다. 12(92.3%)명이 태교를 하여 대조군과 태교유무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5.18, p=.04$). 산후 한달동안 조력자는 12(92.3%)명이 있었다.

〈표 1〉 신생아 가정간호 실험군, 대조군간의 일반적 특성 차이

특성	구분	대조군 (n=15)		실험군 (n=13)		U or χ^2	p
		N (%)	평균±SD	N (%)	평균±SD		
연령	25세 이하	3(20.0)	28.0±3.4	1(7.7)	30.2±4.2	57.0	.06
	26-30세	9(60.0)		8(61.5)			
	31-35세	2(13.3)		3(23.1)			
	36세이상	1(6.7)		7(7.7)			
교육정도	고졸	4(36.7)		1(7.7)		1.71	.33
	대졸 이상	11(73.3)		12(92.3)			
직업	있음	9(60.0)		9(69.2)		0.26	.71
	없음	6(40.0)		4(30.8)			
동거가족	대가족	5(33.3)		3(23.1)		0.36	.69
	핵가족	10(66.7)		10(76.9)			
분만형태	질분만	12(80.0)		8(61.5)		1.16	.41
	제왕절개분만	3(20.0)		5(38.5)			
재원일수			3.9±2.12		4.5±2.11	77.0	.29
산과력	임신횟수	1	14(93.3)	1.1±0.52	6(46.1)	53.0*	.01*
		2	0(0)		3(23.1)		
		3	1(6.7)		4(30.8)		
산전교육	받았음	2(13.3)		4(30.8)		1.26	.37
	안받았음	13(86.7)		9(69.2)			
산후교육	받았음	2(13.3)		6(46.2)		3.68	.10
	안받았음	13(86.7)		7(53.8)			
원하는 임신여부	원함	12(80.0)		12(92.3)		0.86	.60
	원하지 않음	3(20.0)		1(7.7)			

계획된 임신여부	계획함	8(53.3)	10(76.9)	1.69	.25
	계획하지 않음	7(46.7)	3(23.1)		
태교여부	했음	8(53.3)	12(92.3)	5.18	.04*
	안했음	7(46.7)	1(7.7)		
주위의 신생아 양육관찰 경험여부	있음	5(33.3)	4(30.8)	0.02	.88
	없음	10(66.7)	9(69.2)		
첫한달동안 조력자	있음	14(93.3)	12(92.3)	0.01	.92
	없음	1(6.7)	1(7.7)		

산모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결과 임신횟수 ($U=53.0, p=.01$)와 태교 여부 ($\chi^2=5.18, p=.04$)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다(표 1).

2) 신생아의 특성 비교

대조군 초산모의 신생아 15명은 남아가 6(40.0%)명 이었고 평균 재태연령 40.5주, 출생시 평균 몸무게는 3397gm이었으며 모유수유를 8(53.3%)명이 하였다. 실험군의 신생아 13명은 남아가 8(61.5%)명이었다. 재태연령은 39.5주로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U=54.5, p=.04$) 출생시 몸무게는 3355gm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9(69.2%)명이 모유수유를 하였다. 두 집단 특성의 동질성 검증 결과 재태연령($U=54.5, p=.04$)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2. 가설검정결과

2-1)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가정간호를 제공 받은 초산모군은 신생아 비디오상영이 포함된 가정간호를 제공받지 않은 초산모군보다 신생아가 울 때의 반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의 검정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가정간호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초산모 군과 제공받지 않은 초산모군의 신생아가 울 때의 반응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6문항 각각을 1점부터 5점으로 측정 한 결과, 실험군의 평균 총점은 19.8 ± 3.24 이었고, 대조군의 평균 총점이 17.3 ± 2.99 로 두 군의 평균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U=54.5, p=.046$)를 보여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가정간호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초산모의 신생아가 울 때 반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측정범위가 6점에서 30점까지 있을 때, 점수범위가 실험군은 14-24점 이었고, 대조군은 13-23점 이었다.

각 항목마다의 반응능력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얘기하기($U=42.0, p=.006$), 만지기($U=24.5, p=.000$)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그리고 안기(3.4 ± 0.87 (실험군), 3.3 ± 1.35 (대조군))와 감정표현하기(3.1 ± 0.49 (실험군), 2.7 ± 0.98 (대조군))의 항목은 실험군의 평균이 대조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이로부터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 받은 초산모군은 제공받지 못한 초산모군보다 신생아가 울 때의 반응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2> 신생아 가정간호 실험군, 대조군간의 신생아 특성 차이

특 성	구 분	대조군 (n=15)		실험군 (n=13)		U or χ^2	p
		N (%)	평균±SD	N (%)	평균±SD		
성별	남자	6(40.0)		8(61.5)		1.29	.45
	여자	9(60.0)		5(38.5)			
재태연령	36주이상	15(100)	40.5±1.19	13(100)	39.5±1.20	54.50	.04*
출생시 몸무게	2500이상-3000gm미만	4(13.3)		4(30.8)		1.87	.39
	3000이상-3500gm미만	8(53.4)	3397.3±434.6	4(30.8)	3355.4±486.9		
	3500gm이상	5(33.3)		5(38.4)			
수유형태	모유수유	8(53.3)		9(69.2)		0.74	.46
	인공수유	7(46.7)		4(30.8)			

〈표 3〉 신생아 가정간호 실험군, 대조군간의 스트레스 반응정도 차이

항 목	대조군(n=15)	실험군(n=13)	U	p
	평균±SD	평균±SD		
쳐다보기	3.6±0.63	3.5±0.52	94.5	.88
애기하기	2.2±0.77	3.1±0.64	42.0	.006*
만지기	2.1±0.64	3.5±0.78	24.5	.000*
안기	3.3±1.35	3.4±0.87	95.0	.91
감정표현하기	2.7±0.98	3.1±0.49	69.5	.17
가까이 하기	3.4±1.45	3.3±0.95	86.5	.58
총 계	17.3±2.99	19.8±3.24	54.5	.046*

2-2)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초산모군은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지 않은 초산모군보다 신생아 능력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 것이다."의 점정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초산모와 제공받지 못한 초산모의 신생아의 능력에 대한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42문항에 대해 오답과 모르는 경우는 0점, 정확히 아는 경우 1점으로 측정할 결과, 실험군의 평균 총점은 29.1±5.4이었고, 대조군의 평균 총점이 28.8±5.2로 실험군의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 제공이 초산모의 신생아능력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신생아 가정간호 실험군, 대조군간의 신생아 능력에 대한 지식 차이

구 분	대조군(n=15)	실험군(n=13)	U	p
	평균±SD	평균±SD		
수유특성	3.67±.48	3.69±.85	82.5	.36
배변특성	2.73±.70	2.92±.27	91.0	.57
오감특성	5.80±3.27	4.84±2.73	82.0	.47
수면각성특성	13.40±3.33	14.38±1.80	87.5	.64
사회성특성	3.20±.94	3.23±1.23	90.0	.69
지식총계	28.8±5.2	29.1±5.4	82.5	.488

측점점수의 범위가 0점에서 42점까지 었을 때, 점수 범위가 실험군은 18-38점 이었고, 대조군은 22-38점 이었다.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감특성(5.80+3.27(대조군), 4.84+2.73(실험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신생아 능력에 대한 지식점수의 평균값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이러한 결과로부터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초산모군은 제공받지 못한 산모군보다 신생아의 능력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V. 논 의

신생아 가정간호는 전통적으로 조산사나 방문 간호사가 해오던 일이었고, 최근에는 산모의 가정간호 차원에서 신생아의 신체적 간호가 포괄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제까지 신생아의 가정간호는 주로 목욕, 수유, 제대관리 등 신체적인 간호에 국한되었으나, 실제로 산모들이 신생아를 돌볼 때 신생아의 욕구나 상태, 행위의 의미 등과 같은 양육활동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신생아 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이 산모의 신생아 목욕, 수유, 기저귀 갈기, 환경정리 등과 같은 신체적, 물리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고 한것과는 달리(곽연희 등 1996; 서영미, 1998), 신생아에 대한 정서적 양육행동의 핵심요소인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신생아와 어머니간의 심리적, 정서적 반응능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재를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모아상호작용이 행동으로 나타나 관찰되기 이전에 산모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신생아가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울때에 반응하는 정서적인 능력이 증시되어야 하는데, 정서적 능력은 대상자를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산모가 신생아의 요구에 반응하는 정서적인 행위는 모아애착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모아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는 산모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제공되는 일방향적이고 산모중심적인 신생아 양육보다는 신생아의 고유한 행위특성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신생아 돌보기가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생아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수유, 배설, 수면 등의 단계별 특성과 특성에 따른 아기돌보기 방법 및 제반 능력을 이해한다면 산모들은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신생아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특성 관련 교육이 초산모의 양육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았을 때 신생아가 울 때 초산모의 정서적 반응능력을 측정한 Attachment Indicators During Stress (AIDS, Massie-Campbell, 1977)의 측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나, 신생아 특성에 대한 지식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험처치 효과와 실험처치법으로서 신생아 비디오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실험처치 효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가정간호를 통해서 수유, 제대관리, 목욕등의 30분간의 신체적 직접간호와 신생아의 오감 특성, 수면-각성특성, 수유특성, 배변특성, 사회성 특성 및 이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예시를 포함한 19분 짜리 비디오를 통한 시청각 교육과 관련 상담 10분을 포함 총 60분간의 간호를 제공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신생아가 울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생아 특성에 관한 지식 정도는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신생아의 오감특성, 수유특성, 배변특성, 수면각성 특성, 사회성 특성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교육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대조군의 산모들도 알게 모르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이 습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이렇게 습득된 지식이 대조군에서 단지 인지적 수준에 머물고 실제적인 반응적 행위능력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은 모방적 학습과 적절한 정서적 반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대조군에서 신생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행위로서 나타내는 반응능력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신생아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이것이 행동능력으로 전환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시청각 교육자료인 비디오를 통한 감각적 지각의 도모가 모방적 학습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작용되어 양육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됨을 시사함과 동시에 신생아 비디오가 산모들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직접적으로 행위능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 신생아 비디오 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

인간의 학습능력이 형성되어 행동으로 구현되려면 교육방법은 유인물로 하는 경우의 효과가 10%인데 비하여 비디오를 사용하는 경우에 50%의 효과가 있으며 (Reeder, Martin, & Koniak-Griffin, 1997), 특히 성인인 경험중심의 교육을 받을 때에 학습이 일어난다 (Knowles, 1980).

이자형(1998)의 연구에서 교육자료와 전화를 통한 초산모의 육아교육 후에 신생아 양육행동을 자가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군이 교육받지 못한 군에 비해 양육 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행동모델이 시청각 자료 등으로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조수현(1990)의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울음, 수면, 배설 등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언어적, 시각적, 피부접촉 등의 행위집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r=.68$) 보고한 결과를 고려할 때에 신생아에 대한 지각정도를 높여서 알고있는 지식을 행동능력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시청각 교재의 사용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경우도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신생아에 대한 지식적 차이는 없었지만, 신생아 울때의 초산모의 정서적 반응능력이 실험군에서 높았던 결과를 고려할 때, 실험군에게만 제공되었던 시청각 교육자료인 비디오가 산모의 감각적 지각과 모방적 학습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서적 작용을 거치어 양육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좋은 교육도구가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래의 신체적 간호에 국한되었던 신생아 가정간호를 신생아 성장발달 측면에서의 행위적 이해를 바탕으로 산모 반응으로서의 정서적 애착행위를 향상시키려는 시도로서 신생아 비디오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통한 가정간호를 제공했던 본 연구는 임상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VI. 결론 및 제언

A. 요약 및 결론

서울시 Y의료원에 입원후 분만한 초산모를 임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여 선정 기준에 합당한 실험군 13명과 대조군 15명의 총 2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1998년 10월 8일부터 1999년 7월 7일까지 10개월간이었다. 연구도구로는 초산모의 양육능력 측정 도구와 신생아 능력에 대한 지식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자료수집방법은 양육능력 측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하에서의 모아애착 지침 도구인 AIDS(Attachment Indicators During Stress)를 사용해서 신생아가 배고프거나 배설한 경우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는 반응을 보일 때 엄마가 반응하는 정도를 쳐다보기, 이야기하기, 만지기, 감정표현하기, 가까이 가기, 안기 등의 6가지 정서적 반응항목에 대해 각각 1-5점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된 도구를 이용하여, 가정간호사가 직접관찰을 통해 자료수집하였고, 신생아의 능력에 대한 지식측정을 위해서는 문헌을 기초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오감(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특성, 수유특성, 배변특성, 수면-각성 주기 특성, 사회성 특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총 4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초산모에게 직접 작성하게 함으로써 자료수집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를, 산모의 반응능력 정도와 지식 정도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총 점수의 평균값에 대해 Mann-Whitney test를 하였다.

1. 대조군과 실험군의 일반적 특성

두 집단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산모관련 특성 중 임신횟수($U=53.0$, $p=.01$)와 태교 여부($\chi^2=5.18$, $p=.04$), 신생아관련 특성 중 재태연령($U=54.5$, $p=.04$)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표 2).

2. 가설검정결과

1)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초산모군은 신생아 비디오상영이 포함된 가정간호를 제공받지 않은 초산모군보다 신생아가 울때의 반응정도가 높을 것이다."의 검정

두 집단간에 신생아가 울 때 초산모의 반응능력 정도를 항목별 점수의 평균의 합으로 비교했을 때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19.8 ± 3.24 이었고,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17.3 ± 2.99 로 두 평균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U=54.5$, $p=.046$)를 보여,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

함된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초산모군이 그렇지 못한 초산모군보다 신생아가 울 때 반응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애기하기($U=42.0$, $p=.006$), 만지기($U=24.5$, $p=.000$) 항목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잘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초산모군은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신생아 가정간호를 제공받지 않은 초산모군보다 신생아 능력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 것이다."의 검정

두 집단간에 초산모의 신생아 능력에 대한 지식 정도를 항목별 점수의 평균 합으로 비교했을 때 실험군의 경우 29.1 ± 5.4 이었고, 대조군의 경우 28.8 ± 5.2 로 실험군의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 신생아 비디오 상영이 포함된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초산모군과 그렇지 못한 초산모군의 신생아 능력에 대한 지식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상의 결과로부터 신생아 비디오는 유인물이나 설명, 책자 등과의 비교연구가 아니었지만 산모들이 신생아 육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매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B.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신생아 능력관련 비디오를 퇴원시 병원에서 보여주고 교육을 한 후 신생아 양육능력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2. 신생아 능력관련 교육을 비디오와 유인물로 한 경우에 양육효과 차이를 비교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3. 보다 정련된 신생아 비디오의 개발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곽연희, 이미라 (1996). 산모교육의 효과측정.-산육기 자가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46-255.
 권미경 (1998). 저체중 출생아와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 증진 중재프로그램.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학

- 위논문.
- 김태임 (1997). 영아의 상태, 행동, 암시. 제 4회 부모-자녀 건강 연구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 김혜원, 황문숙, 홍경자 (1998). 산욕초기 초산모의 모성정체성과 영아돌보기 활동 자신감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1), 65-77.
- 구현영, 문영임 (1998).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 대한간호학회지, 28(4), 920-930.
- 문영임 (1998). 신생아 어머니의 역할긴장과 모성정체감에 관한 연구. 중양의학, 63(1), 87-97.
- 박영숙 (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서영미 (1998). 신생아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지식, 자신감, 행동정확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28(4), 1060-1074.
- 신혜숙, 이경희 (1998). 산욕기 여성의 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2), 271-288.
- 이경혜 (1982).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2(2), 67-79.
- 이은숙 (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형 (1997). 모-영아의 상호작용. 제 4회 부모-자녀 건강 연구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 이지형 (1998). 초산모를 위한 육아교육이 어머니의 신생아 양육행동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3), 322-331.
- 이혜경 (1992).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2(2), 67-79.
- 임혜경 (1997). 신생아 발달사정. 부모-자녀 건강 학술대회 자료집
- 장순복, 최연순, 박소미, 박정숙, 김은숙 (1999). 산후 6개월간 산모와 신생아의 가정간호 요구. 대한간호학회지, 29(3),
- 전은미 (1993). 산욕부와 신생아의 가정간호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계하 (1993). 신생아 돌보기의 교육 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비교.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현(1990).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애착행위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p2-20.
- 최연순, 장춘자, 조희숙, 최양자, 장순복, 박영숙, 이남희, 조동숙, 이은희 (1999). 여성건강간호학(I). 서울: 수문사.
- 하영수, 정금희, 김신정 (1990). 어머니 역할획득과정에서 인지된 스트레스와 건강생활양식 이행과의 관계. 간호과학, 제2권, 23-47.
- Barnard (1985). Studying pattern of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10(5), 358.
- Bobak, L. M., Jensen, M. D., & Zalan, M. K. (1989). Maternity and Gynecologic care. (4th ed). the C. V. Mosby Co.
- Brazelton, T. B. (1961). Psychophysilogic reactions in the neonate - The vale of observation of the neonate. Journal of Pediatric, 58, 508-512.
- Brazelton, T. B. (1962). Crying in Infancy. Pediatrics, 29, 579-588.
- Cooper, P. J., & Murray, L. (1998). Postpartal depression. BMJ, 316, 1884-1886.
- Knowles, M.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Chicago: Association Press
- Massie, H. N., & Campbell, B. K. (1977). AIDS Scale. The Massie-Campbell Scale of Mother-Infant Attactment Indicators.
- Massie, H. N. (1978). Blind rating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in home movies of prepsychotic and normal infa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11), 1371-1374.
- Mercer, R. T. (1986). First time motherhoo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Reeder, S.J., Martin, L. L., & Koniak-Griffin, D. (1997). Maternity Nursing, Lippincott, P476-77

-Abstract-

key concept: Neonate, Video, Home care, Stress care

Effects of Home Nursing Care-Assisted Neonate Video Instruction on Stress Care Ability for Neonates in Primipara Women*

Soon Bok Chang** · Ju Eun Song**

I.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s on the ability of primipara women to deal with stress by home nursing care-assisted neonate video instruction. The proposed main hypothesis was that 'the score of stress care ability could be lower in the group of primipara women which received home nursing care-assisted neonate video instruction than in the group which did not receive video instruction.' The sub hypothesis was that 'the score of neonate knowledge would be lower in the group which received home nursing care assisted neonate video instruction than in the group which did not'.

II. Methodology

The study design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post test only design to verify the effect on the stress care ability for neonates of primipara women provided with home nursing care-assisted neonate video instruction. The subjects included 28 primipara women who gave birth after 36 week intra uterine pregnancy, who did not have any pregnancy or delivery related

complication, and who gave birth to a child over 2.5Kg. Subjects were recruited with informed consent : 15 primipara women were in the control group and 13 primipara women were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experimental treatment involved 30 minutes of neonate care demonstration including an oral explanation, and a 19minute video presentation. The experimental treatment was given by an expert home care nurse who had 6 years of maternity care experience in a hospital and two years of home care experience, including education with clinical training. The contents of the video material consisted of the sleep-awakening process, elimination process, feeding process and some sensory capability of neonates.

The study was measured with two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tool of knowledge relating to neonate ability consisted of 42 items, and the tool of stress care ability for neonates(Attachment Indicators During Stress :AIDS) consisted of six domains including visual contact, verbal contact, physical contact, pasture, facial expression an proximity. Each domain was measured by a five-point scale.

Data collection was done by direct observation and interview during the period from October, 1998 to August, 1999 by one expert home care nurse. Data analysis was done by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and Mann-Whitney test.

III. Results

1. The hypothesis that 'the score of stress care ability for neonate of primipara women could

* Supported by the korea academy development fund(1997-001-F00296).

** Maternity Nursing Dpartment,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Researcher of Research Institute For Home Health Care.

be higher in the group which received home nursing care-assisted neonate video instruction than in the group which did not,' was supported with a confidence level of $p < .05$.

2. The hypothesis that 'the score of knowledge for neonate ability of primipara women could be higher in the group which received home nursing care-assisted neonate video instruction than in the group which did not,' was not supported with a confidence level of $p < .05$.

It could be concluded that home nursing care assisted neonate video instruction for neonate care is effective in relation to stress care ability of primipara women, but not the level of knowledge for neonate abilit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to compare the effects between the hospital education and home education through the neonate video.